

'전남교육청 영상회의시스템' 회의문화 파격 혁신

개통 2개월 만에 '회의 문화' 자리 매김

코로나19 대면접촉 최소화...현장 '호응'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코로나19 위기 속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축한 '전라남도 교육청 영상회의시스템(JWC)'이 현장의 호응을 얻으며 개통 2개월 만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회의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 초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전라남도교육청 영상회의시스템을 개통했다. 대면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차단하고 교직원들의 원거리 출장 최소화, 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용 신청이 쇄도해 개통 2개월여 만인 8일 현재 도교육청은 86회 이용에 1,401명이 참여했고, 지역 교육지원청은 261회 이용에 4,211명이 참여했다.

7월 이후에는 제2기 전남학생의회가 2020년 전반기 정기회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당초 이 회의는

도내 고등학교 학생대표인 '전남 학생의원' 14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의장단 5명만 직접 현장에 참석하고 다른 학생의원들은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생의원 여러분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언택트' 사회로 변화하는 흐름을 선제적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전남 미래교육 및 인사혁신 공청회도 영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고, 동시에 유튜브 채널로 방송함으로써 회의효과를 극대화한 것은 물론 적극적인 전



남교육 홍보에 기여한 바 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영상회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화순교육지원청은 시스템 개통 이후 등교 개학 대비 행정실장 회의, 돌봄전담사 역량강화 연수 등 10회 이상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 시스템은 교직원들이 PC뿐 아니라 모바일로 쉽게 접속해 언제 어디서나 원격 화상을 통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실시간으로 회의 또는 세미나 자료를 공유하고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다.

김준호 행정국장은 "교직원들이 대면회의를 탈피해 영상회의를 주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각종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남교육 행정에 새로운 바람이 이는 것과 함께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장흥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

학생 심리검사·담당 상담교사 심층분석 및 결과 파악



장흥고등학교는 지난 6월부터 8일까지 학교도서관에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연계하여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학년 전체 학생과 참가를 희망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강사는 화순고, 강진고, 해동고

담양고, 병영상업고, 순천여자고 등에서 대입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입현장지원단 교사들로 구성된 학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프로그램은 사전 준비로 '스마트 진로' 학습 종합검사를 통해 학생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담당 상담교사의 심층분석 및 결과 종합

해석지 파악 등으로 진행됐다.

캠프 당일엔 도내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대입현장지원단을 6명 배치하고 각 상담 장소로 이동하여 학생 1인당 20~30분 정도 검사결과 분석 및 개별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내용은 진로 준비 정도에 대한 파악, 적성에 맞는 전공, 계열과 연계한 진학상담, 성격 특성에 따른 학습 방법 및 고교학점제에 따른 선택과목 알아보기, 진로탐색검사 및 종합적성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로 대안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1학년 학생의 한 학부모는 "앞으로 대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았는데, 경험이 많은 도내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대입현장지원단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해주어, 대입 준비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프로그램은 사전 준비로 '스마트 진로' 학습 종합검사를 통해 학생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담당 상담교사의 심층분석 및 결과 종합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학원 방역 특별 지도점검' 실시

15일까지 교육부·관할구청서 학원 방역 합동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특별지도점검반 31개조를 편성해 2~15일 '학원 방역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8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학원 방역 특별 지도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관내 모든 학원 고위험시설 지정, 새로운 유형의 시설별 감염 확산 사례 증가로 인해 학원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서부교육지원청은 관할구청과 학원 방역 대응반을 구성해 지난 2일 남구청과 학원 방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지난 7일 교육부·광산구청과 학원 방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부교육지원청 이영주 교육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학생안전을 위해 학원 및 교습소는 시설 방역 등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청의 후원 권고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이 끝난 후에도 미유원 학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청암대 '안경광학과, 산업체 교수-학생 간담회' 개최



청암대학교 안경광학과(학과장 박성중 교수)에서는 보건 의료 서비스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더밝은안과, 이순신안경원, ㈜KS광학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산업체 관계자를 초대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교수

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3일에 대학 산학정보관에서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방학 중 현장실습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속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과 산

업체 실무자들과 현장실습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실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청암대학교 보건 의료 서비스 전문인력양성사업단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현장실습의 준비와 이를 통한 맞춤형 취업으로 연계를 준비하고 있다.

전라남도 취업패키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암대는 안경광학과 등 5개 학과 5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정성운 기자

한려대-광양교육지원청 업무협약 체결

양 기관 발전위해 상호 협력

한려대학교가 지난 2일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과 교육장실에서 상호 협력 체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 중, 고등학교 등교 수업이 이루어진 지난 달 8일부터 3주간 광양교육지원청과 우리대학교 간호학과와 함께한 코로나19 대응 교육활동 지원(자원봉사자 지원)협력 사업이 계기가 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전염병의 확산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우리대학교 소속 학생을 활용하여 관내 초·중등학교에 자원 봉사자를 지원하고, 우리대학교 소속 학생의 전공과목 교육실습을 위해 초·중등학교를 실습장소 제공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